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626-01

# 韓國의 寺址

현황조사 보고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15  
上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財團法人  
佛敎文化財研究所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 일러두기

- 01 · 본 보고서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내 寺址의 2015년도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은 2012년에 3·4유형 사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5년에 1·2유형과 5유형 일부 사지를 조사하였다.

### | 유형 분류 기준 |

- 1유형 : 해당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지
- 2유형 : 사지 내 지정된 문화재가 소재하거나 소재했던 사지
- 3유형 :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며, 현재 지정되지 않은 사지
- 4유형 : 기존조사에서 사지로 보고되었지만 특정 원인으로 인해 현재 확인되지 않는 사지
- 기 타 : 현존하는 불교문화재 중 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조선시대 이전에 폐사된 후 일제강점기에 중창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사찰.

- 02 · 각 시·군과 조사지역 정렬 순서는 가나다순이다. 단, 산내암자지의 경우 소속사찰별로, 경주 남산은 골짜기별로 정렬하였다.
- 03 · 본 보고서는 총 2권으로 분권한다. 보고서는 각 사지별 현황기록과 현황도, 조사결과표로 구성되어 있다. 단, 4유형 사지의 경우는 현황도를 수록하지 않고, 기타 사지는 별도의 표에 제시한다.
- 04 · 부록1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유형별 사지현황 및 미조사 사지 표가 수록되었다. 부록2는 2012년과 2015년의 각 사지별 색인표이다. 부록3에는 2015년 조사 대상 지역이 아닌 전라남도 곡성군 마전리사지와 경상남도 함양군 운서리사지의 현안조사 내용이 수록되었다.
- 05 · 보고서 내 수록 지형도는 (주)ilmsoft가 제조하여 SKtelecom에서 공급하는 Geovision 랜드맵 Professional(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2010-019호)의 자료를 편집한 것이며, 도면 내 별도의 방위표가 없는 한 圖北을 기본으로 한다.
- 06 · 조사구역 좌표 측량은 WGS84계로 운용되는 Garmin社의 Oregon300과 MitAC Digital社의 Magellan eXplorist610을 이용하였고, Google Earth를 통해 확인 후 수정하였다.
- 07 · 사지 명칭은 寺名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法定地名으로 표기한다. 사지명칭이 동일한 경우 말미에 번호를 부가한다. 단, 경주 남산 일원에 소재한 사지는 유적의 특성상 골짜기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 08 · 소재문화재 명칭은 문화재청 등록명칭과 기존 명칭을 따랐다. 단, 띄어쓰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역, 명칭을 구분하여 띄어쓰기하였다. 또한 조사구역현황도와 조사결과표에 기재하는 소재문화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표기하였다.
- 09 · 현장조사 시 중요도가 높은 유물은 수습하였으며, 그 중 일부 유물은 실측·탁본하여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각 도면은 해당 축척을 별도 표기하였다.
- 10 · 식생유구영향도와 전체 유구상태에 대한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식생유구영향도 |

- 높음 : 유구 전반이 식생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구가 영향 받는 경우
- 보통 : 유구 전반이 식생과 관련된 지형적 원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유구가 영향 받는 경우
- 낮음 : 유구 전반에 식생이 분포되어 있으나 작·간접적으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유구 전반에 식생 군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전체유구상태 |

- 양호 : 유구 잔존 상태가 양호하여 사역의 추정 가능한 경우
- 보통 : 유구가 일부 잔존하여 원형 추정은 가능하나 전체적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 불량 :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유구가 훼손되어 원형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 협조기관

경주시청	국립경주박물관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청량산박물관
문경시청	국립대구박물관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부석사성보박물관
영천시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북대학교박물관	직지사성보박물관	청도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안동대학교박물관	상주박물관	소수박물관

## 대구광역시

---

남 · 동구      上 · 009

달성군      上 · 065

## 경상북도

---

경산시      上 · 075

경주시      上 · 085

고령군      上 · 477

구미시      上 · 489

군위군      上 · 545

김천시      上 · 583

# 조사개요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재보호기금의 일환으로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2010년),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2011년), 대구광역시·경상북도(2012년), 울산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전라북도(2013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2014)에 대해 실시하였고, 2015년에 대구광역시·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도 조사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필요한 목록을 검토하고 3월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하였다. 사지 조사 수량은 2010년에 작성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총 1,411개소 중 2012년에 조사한 650개소를 제외한 761개소 중에서 지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지 22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6개소가 증가하여 총 231개소가 현장조사 되었다. 231개소 중 현장조사 결과 사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현장을 방문했으나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 등은 기타 사지 항목으로 별도 수록하였다.

현장조사는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등 다양한 전공자가 함께 진행하여 종합적 학술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소속사찰과 산내암자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광역적 의미의 사역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문헌검토는 창건과 중수·중창, 폐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官撰 및 私撰 지리지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개인문집 등에 수록된 기문도 사찰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활용하였다. 그리고 근래에 발간된 보고서들은 직접 확인한 경우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각 사지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문화재는 현황과 사진자료를 수록하였고, 원위치에서 이동된 문화재 중 박물관 등 관련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 협조를 통해 해당 자료를 보고서에 실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망실되거나 이동된 문화재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조사결과는 종합결과표를 작성하였으며, 결과표 내 토지 소유관계는 크게 국유와 사유로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각 사지의 원고에는 현황도를 마련하여 사지의 현위치와 범위를 표시하였다. 중요문화재가 남아 있거나 주요사지로 판단된 경우 현재의 주변 환경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항공촬영을 실시하였고, 주요 유물에 대해 실측도면을 수록하였다. 또한 조사지역 내 사지 위치에 대한 지정학적 분포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2015년 조사단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하였다. 자문 위원회와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자문위원

문영빈(전 문화재위원)  
김봉건(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장용철(안양대학교 교수)  
최응천(동국대학교 교수)  
양정석(수원대학교 교수)  
김철주(문화재청 전문위원)  
손영문(문화재청 전문위원)

### 행정지원

이유범(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과장)  
조주성(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무관)  
박지영(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주무관)

### 전문사진촬영

이정훈(i studio 대표)

### 항공촬영

Air-Works

### 조사단장

정 안(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 조사부단장

김영일(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 책임조사원

임석규(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

### 조사원

한옥빈, 이현수(이상 유적연구실 팀장)  
박영민, 안선우, 이소연, 조민수, 박광현,  
이솔지, 유명우, 이재우(이상 유적연구실 연구원)

### 조사보조원

차인성, 윤선아(이상 유적연구실 연구원)  
허준영(전 유적연구실 연구원)

마지막으로 현장조사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구미 보천사 법진스님, 구미 도리사 묘장스님, 상주 동해사 상오스님, 성주 심원사 본해스님, 안동 옥산사 법경스님, 예천 청룡사 혜선스님, 국립경주박물관 김유식 실장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김동하 선생님, 청량산박물관 정민호 선생님께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